

무주-서울 1일 생활권 시작

직통버스 증회·시간 조정

무주군은 무주-서울 간 직통버스 증회(1회) 및 시간 조정이 22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이 가능해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서울(남부) 직통버스는 구천동에서 7시 10분에 출발해 설천(7:30), 무주(8:00)를 경유, 서울남부(10:30)에 도착하는 노선 1회가 증회돼 왕복 6회가 운행된다. 서울발 무주행 마차는 오후 6시에 출발해 밤 8시 30분 무주에 도착(20:55 안성, 21:20 장계, 21:40 장수)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광환 부의장, 이해양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 등은 22일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 실현 소식을 알렸다.

주민 안 모 씨(58, 무주읍)는 "큰 애가 서울서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증회 소식이 날릴 것 같고 기쁘다"라며 "서울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을 경유하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의 필요성은 무주 발 첫차 시간(09:45)이 늦



황인홍 무주군수와 군의회 이광환 부의장을 비롯한 전북고속 황의종 사장 등은 22일 무주공용버스터미널에서 '무주-서울 간 1일 생활권' 실현 소식을 알렸다.

고 서울발 마차 시간(14:35)은 빠른데다 왕복 5회밖에 운행하지 않아 발생하던 불편이 공문화되면서 제기된 것으로, 무주군은 4월 11일 무주군의회 제268회 임시회를 통해 '무주-서울(남부) 간 직통버스 1일 생활권'을 촉구했던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과 함께 그동안(4개월 간)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청, 충남도청, 전북고속, 금남고속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여러 건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켰다.

황인홍 군수는 "농·산촌에 산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에 제한이 따랐던 무주군민과 무주여행에 한계를 느낀 수밖에 없었던 관광객의 불편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무주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양 의원은 "무주발 첫차 시간이 늦고 서울발 마차 시간이 빨라서 대전을 거치지 않고는 하루 만에 다녀오기도 힘들고 명절 때는 사람도 많아 여러 가지로 불편했는데 반딧불축제와 추석을 앞두고 성사돼 기쁨이 배가 되는 거 같다"라며 "조만간 직통버스를 이용해 서울까지 직접 왕복해보고 또 다른 불편은 없는지도 모니터링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가격 할인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반딧불 축제 맞이 진행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무주의 대표 축제인 '무주 반딧불 축제'를 맞이하여 기간 내 리조트에 숙박하는 고객들에게 가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는 무주 반딧불 축제 기간인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 객실요금과 부대시설 요금을 할인한다. 객실은 주중, 주말을 포함 최초 객실요금에서 최소 28%부터 최대 42%까지 할인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가족호텔 실버타임 기준 주중 주말 요금이 각각 12만, 16만원이었다면, 할인가는 각각 7만, 10만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객실 요금은 타입 별로 상이해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대시설인 관광곤도라, 물살매, 세인트휴(사우나) 등도 30% 할인

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천연기념물 제322호인 반딧불이를 테마로 한 생태자연환경축제이자 무주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은 대지의 특성을 기반으로 개최하는 축제다.

1997년 '자연의 나라 무주'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인 이래 10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축제, 5년 연속 최우수축제에 선정됐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뽑히기도 했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반딧불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무주의 대표적인 축제를 맞이해 가격 할인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무주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철도승차권 예매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철도승차권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승차권 예매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구매가 쉽지 않은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군청을 비롯한 6개 읍·면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서 진행된다.

민원실 창구에서 철도승차권 구입의사를 밝히면 담당 직원들이 인터넷(코레일)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날짜, 시간의 열차표를 예약·발권해 주게 되며 비용은 민원인이 승차권 가격만큼 지불하면 된다.

무주읍 김 모 씨(72)는 "기동력이 없으니까 예약하겠다고 역에 일부러 나갈 수도 없고 당일 가서 끊자니 표가 없을까봐 불안하고 그동안 참 불편했는데 다해준다니 좋다"라며 "부산 딸네 갈 때 꼭 이용해봐야겠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지난 7일 읍·면 민원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으며 서비스 홍보와 정착을 위해 읍·면 전광판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군, 국가예산 확보 전략 강화 특강

장수군은 22일 군민회관에서 유태희 부군수와 국가예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예산 확보 전략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국가예산 확보 전략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은 전라북도 경제협력단 허진 단장이 2시간에 걸쳐 ▲정부 예산 주요내용 ▲정부예산 관련 주요제도 ▲예산확보를 위한 주요전략 ▲신규사업 발굴 시 고려사항에 대해 공무원 맞춤 강의를 펼쳤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 허진 단장은 기획재정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별 국가예산 확보 및 전략, 애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허진 단장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시의 적절한 방문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수=고환호기자

진안군 사회복지대학 졸업식

진안군 제4기 사회복지대학(학장 김승) 졸업식이 22일 진안군사회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에서 진행한 졸업식은 강봉순 학생 등 49명 전원이 학사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이정단, 전점순, 한규선, 한부접 학생이 개근상을, 강순세 학생 외 12명의 학생이 정근상을 수상하였으며, 학장상에 이은희 학생대표가, 협의회회장에 강봉순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지난 4월부터 20주간 매우 목요일마다 진행된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이론, 노인복지론, 복지와 경제, 사회복지 실천사례, 사회복지 현장체험, 웰다잉, 실전지 견학, 생활체육 등 다채로운 수업이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복지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대학은 4기까지 총 17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제4기 사회복지대학 학생대표를 맡은 이은희씨는 "학생들과 어우러져 학창생활을 열심히 마감하게 되었다"며 "대학에서 배운 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겠다"고 밝혔다.

송상모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배움을 토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가진 것을 나누어 행복한 진안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 홍삼축제 빛넬 트로트 페스티벌 열린다

트로트페스티벌 기자간담회... 10월 12일 열정적인 무대 기대

2019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2일 진안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

진안군은 22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송대관 조직위원장 등 트로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가수들과 함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로 5회째인 2019 트로트페스티벌에는 송대관, 설운도, 장윤정, 김연자, 현숙, 신유, 진성, 서지오, 박성연, 박혜신, 나미에 정성급 트로트가수들이 총출동하여 진안홍삼축제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트로트페스티벌 홍보대사 위촉장 수여와 조직위원장을 맡은 가수 송대관의 각오, 트로트페스티벌 브리핑, 미니 인터뷰 순으로 진행



진안군은 22일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송대관 조직위원장 등 트로트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가수들과 함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됐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지난해 대성황을 이뤄 올해에도 대중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군민과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알차고 빈틈없

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회 진안고원 트로트페스티벌은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펼쳐지는 2019 진안홍삼축제 기간 중 1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 50세 이상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진안군보건소는 22일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50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 속 신경절에 숨어 지내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발생하며, 심한 통증과 지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는 질환으로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45만명, 2014년 64만명, 2017년에는 71만1442명으로 해마다 대상포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61% 정도를 차지해 대상포진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해 진안군보건소 대상포진 유료 예방접종 결과 접종자 3,718명 중 50대 접종자가 624명으로 접종률이 16.7%로 매우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50세 이상 주민에 한하여 접종비 90,000원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접종은 1회로 완료된다.

보건소 접종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까지이며, 보건소 예방접종실에 방문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효능은 50대가 가장 높으며 나이가 들수록 효능이 많이 떨어진다"며 "50~60대 주민들의 많은 접종 바랍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